

시다→비정규직 지금도 계속되는 그녀들의 고단한 삶



임흥순 작가 광주극장서 '위로공단' 관객과의 대화

그녀들의 삶은 처절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녀들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해준다. 가슴이 먹먹했다.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 겸 감독의 작품 '위로공단'을 지난 30일 광주극장에서 관람했다.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에는 '임흥순 작가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위로공단'은 인터뷰이 22명을 통해 구로공단 '공순이'부터 서울시청의 다산콜센터 직원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변천사를 따라간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노조위원장 투표를 방해하려는 사측이 파부는 통물을 뒤집어써야 했다. 친한 언니를 따라 공장을 찾았던 한 소녀는 교복과 비슷한 작업복을 입고 잔디밭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그들의 삶이 부러워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매일 잔업과 야간, 특근이 이어질 뿐이었다.

'위로공단'은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참혹했던 그녀들의 삶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애써 설명하려고도,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곳곳에 담긴 퍼포먼스가 그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뿐이다.

그녀들이 그 시절 공장에 들어갔던 이유는 '생존' 때문이었다. 가족을 위해,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서였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삶이었다. 포스터에 적힌 것처럼 '꿈과 행복을 찾기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70~80년대 구로공단의 상황은 현재 동남아에서 계속되고 있다. 집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여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옷 한 벌이 해외에서 얼마에 팔리는지조차도 모르고 '미성'을 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월급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고, 폭방에서 잠을 자는 게 그들의 생활이다.

구로공단에는 현재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이름도 구로디지털단지로 바뀌었다. 슬픈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녀들의 처절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60~70년대 '공순이'는 지금의 '콜순이'가 됐고, '시다'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큐멘터리 상영 후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는 임 작가와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조인호

베니스비엔날레 첫 은사자상

'우리들의 누이' 22명 인터뷰

여성 노동 변천사 담담히 그려

여동생과 함께 참석 임감독

"어머니·동생 삶이 영화 출발점

'광주 이야기' 작품 구상 중



지난 30일 광주극장에서 '위로공단' 상영 후 열린 '임흥순 작가 관객과의 대화'에서 임 작가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조 실장은 '미술과 영화 사이의 경계인'이라고 임 작가를 소개했다.

이날 대구에서 행사를 마치고 곧장 광주로 달려온 임 작가는 "꼭 이 영화에 대해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입

을 열었다.

그는 "광주가 저에게 준 게, 따뜻한 게 많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작가는 지난 해부터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 중이다.

상처를 지닌 이를 만나 그들의 아픔을 들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60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를 만나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신의 얘기를 남 앞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 드렸어요.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터뷰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해, 신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화도 사람들의 목소리, 표정이 더 중요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힘이기도 하죠."

다큐멘터리에는 많은 퍼포먼스가 나온다. 얼굴을 흰 천으로 감싼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도 관람 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로 나왔죠. 좁은 곳에서 16시간을 일하며 눈과 코로 먼지와 실밥을 들이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을 가린 퍼포먼스는 염(癢)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그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위로공단'은 공장에서 수십 년간 '시다'로 일했던 어머니와 마트 종업원으로 일한 여동생의 삶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날 작가와의 대화에는 광주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함께했다.

"이 영화는 방송다큐처럼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받았던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동생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임 작가는 최근 뉴욕에서 베트남전과 이라크 전쟁을 겪은 여성들을 상처를 그린 24분 분량의 작품 '환생'을 선보였다. 그는 '환생'을 장편으로 만드는 한편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구상 중이다.

한편 '위로공단'은 2일 오후 5시20분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숙자오페라라인 '사랑의 묘약' 공연

23번째 정기공연...2~3일 광주문예회관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이 23번째 정기공연 작품으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공연한다.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유명한 '사랑의 묘약'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난한 농부 네모리노는 농장주의 딸 아디나를 남몰래 좋아한다. 하지만 하사관 벨로레 역시 아디나에게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보는 네모리노는 절망에 빠진다. 이때 사랑의 묘약을 판다는 약장수 둘꺼라마가 등장하고, 사랑의 묘약을 마신 네모리노는 아디나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김영연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



윤승환



손숙경

연하며 K.O.L.합창단(지휘 김병무)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허복영씨다.

네모리노 역에 윤승환·김정규씨, 아디나 역에 손숙경·장마리아씨가 캐스팅됐으며 조규철·김경호(벨로레 역), 김일동·최공석(둘꺼라 마 역), 양현애·조정현(잔네타 역)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0만원~1만원. 문의 062-514-70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오지문예창작대학 문순태 작가 초청 강연

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생오지문예창작대학이 오는 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다목적실)에서 2015년 2학기 개강특강으로 '타오르는 강'의 작가 문순태를 초청해 강연을 갖는다.

문 작가는 '인문학시대의 감성'이라는 주제로 상상력의 원천인 감성적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의 가능성, 이성적 인문학과 감성적 인문학의 중요성 등을 다양한 문학작품을 사례로 들어가며 진행한다.

문 작가는 1965년 '현대문학'에 시 추천을 받았고,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 공모에 '백제의



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재원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를 펴내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장편소설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 사인회도 있을 예정이다. 문의는 061-381-240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지석영 독주회

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지석영 독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슈만의 '빈 사육제',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과 '쿠프랑의 무덤'이다.

지씨는 미국 인터라켄 아트 아카데미를 거쳐 줄리어드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인터라켄 어워드 연주자상 등을 받았으며 줄리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스턴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에서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귀국 후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숨겨진 보



석'에 객원 피아니스트로 참여한 그는 2014년 영산아트홀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 'The Felix Trio' 멤버로 활동 중이다. 오는 10월 3일에는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공연이 열린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문의 02-363-88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대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임,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평, 동부소병서, 북경랑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